

- HOME
- 로그인
- 회원가입
- 뉴스레터

기사제보 및 취재요청



# The Science Times

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 타임즈

한국과학장외재단




목록 | 글자크기

독일 역시 '녹색성장'에 올인한다 **독일 DLR의 게를드 하인리히 박사 인터뷰** 2009년 10월 16일(금)

전 세계에 불고 있는 녹색성장 바람이 국제간 연구협력의 물꼬를 트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간 연구자들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. 'KORANET' 프로젝트도 그 중의 하나다.

### 'KORANET' 프로젝트

'KORean Scientific Cooperation NETwork with the European Research Area'의 약자로 한-EU 공동프로젝트. 독일, 오스트리아, 영국 등 유럽 9개국 및 한국이 참여하고, 올해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 동안 약 230만 유로의 예산이 지원된다. 한국중심의 EU 회원국들과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.

14일 오전 10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'한국과 EU간 녹색기술 컨퍼런스'에 참석차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독일, 프랑스, 영국 등 유럽 주요 9개국 및 한국 측 정부 및 연구지원기관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였다.



▲ 14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'한국과 EU간 녹색기술 컨퍼런스'가 열렸다.

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KORANET) 컨소시엄 위원회 구성 관련 세미나에는 이 KORANET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는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산하 국제협력국(DLR) '게롤드 하인리히(Gerold Heinrichs)' 박사가 참석,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 하인리히 박사를 통해 KORANET 프로젝트의 운영과 목적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.

#### - 이 사업의 목적을 소개하면.

이 KORANET 프로젝트는 제7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럽연합에서 유럽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, 유망한 연구자가 있는 유럽 외 지역 즉, 제3국을 같은 연구 파트너로 끌어들여 궁극적으로 '유럽연구지역(ERA, European Research Area)'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. 이를 위해 50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.

#### - 예산 및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나.

KORANET 프로젝트에는 한국 및 유럽 9개국이 공동 파트너로 참여해 운영한다. 이 프로젝트에는 실무 공동파트너 외에 정부위원회(각국 정부, 한국은 교육과학기술부)와 읍서버기관들이 있다. 참여하고 있는 각 국으로부터 예산을 모아 과학자들에게 지원하는데 전체 프로젝트 운영예산은 유럽집행위원회(EC)가 지급한다.

#### -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은.

각 파트너들은 각국 정부의 예산을 모아 새로운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국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기획을 하고 있다. 아울러 여러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워크숍, 컨퍼런스 등을 한국과 유럽에서 번갈아 개최하면서, 한국 및 유럽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다. 또한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통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작업을 통해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다.



▲ 독일 DLR의 게를드 하인리히 박사

**- 한국연구재단과의 관계는.**

원래는 독일의 펀딩 에이전시가 한국의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(KIKOS)이었는데 6년 동안 양자 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. 그리고 KIKOS와 이미 다자간 협력을 하는데 합의가 이뤄졌었다. 그리고 이번에 KIKOS가 한국연구재단(NRF)에 통합됨으로써 연구재단과 같이 일을 하게 됐다. 올해 1월부터 이 다자간 사업을 시작했다.

**-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 배경은.**

KORANET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를 연중 1-2회 연다. 이번 컨퍼런스는 첫 번째 행사다. 우리의 사업은 각국 과학자들이 이 행사에 와서 상호교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이다. 이번에는 녹색기술로 콘셉트를 잡았는데 다음에는 정보통신 분야로 할 생각이다. 특히, 컨퍼런스에서 박찬모 이사장을 비롯한 유럽 지사장들의 개최사는 각 나라 과학자들의 관심과 참여의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.

**- 본인의 역할은.**

나는 독일 DLR(독일 연방교육연구부 국제협력국)의 총괄 코디네이터다. DLR은 독일의 교과부 산하 기관으로 거기서 아시아 쪽을 담당하는 부서장이다. 아시아 중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를 총괄 책임지는 일을 맡고 있다.

**- 독일은 녹색성장을 어떻게 준비하나.**

독일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략으로 녹색성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. 한국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, 현재 한국이 어떻게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유럽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서로 교류하면서 알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.

**- 전반적인 유럽의 녹색성장을 설명하면.**

유럽의 녹색성장 전략은 새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.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유럽의 경우, 화석연료의 소비를 걱정해서 경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에는 경차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. 새로이 큰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녹색성장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.

### - KORANET 프로젝트의 향후 과제는.

각 나라로부터 예산을 모아서 새로운 과제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과 한국을 연결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. 개념적인 것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과학자들을 끌어들이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를 위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, 예산도 더 늘리는 것이 향후 과제다.

▶ 조항만 기자 | [chohang2@empal.com](mailto:chohang2@empal.com)

▶ 저작권자 2009.10.16 © ScienceTimes

< 목록

 스크랩  프린트  기사 이메일 보내기

#### 많이 본 기사

- “인간 생체시계의 수수께끼를 ..
- 대장암 쓰나미?...’대장..
- GMT 개발, 어떻게 돼가고 ..
- 신종플루 백신, 그것이 알고 ..
- 국립과천과학관장에 이상희 전 ..
- RFID/USN Korea 2..
- ‘과학문화융합’ ... 전문분야 ..
- 노벨이 주목한 ‘단백질 공장의..
- ‘조용한 도둑을 잡아라..
- 인간 사진기와 디지털 치매

#### 뉴스레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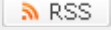
지난호 보기 이름  이메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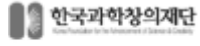


대한민국 정책포털

• [저작권안내](#)

• [개인정보취급방침](#)

- 이메일무단수집거부
  - 운영자에게
-  RSS
- 사이언스타임즈이용안내
  - 기관소개
  - 찾아오시는길



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, 무단  
전제,복사,배포 등을 금합니다.

135-8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09 (대치3동 960-12) 한국과학창의재단 / TEL (02)555-0701 FAX (02)555-2355

정기간행물 등록번호 : 서울아00340 / 발행인 : 정윤 Copyright© 2008 KOFAC. All Rights Reserved.

